



연화장세계

제23호

2014년 12월

연화세계 우) 477-82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150번길 7 (행현리 388)

Tel 031)585-5108

fax 031)584-5108

홈페이지: www.yeonkkot.com 발행·편집: 심정명 / 이메일: yeon9@hanmail.net



<파키스탄 탁살라 줄리양(Jaulian) 불교유적지에서 평화기원 기도를 정명스님과 신도회장 임주연 / 2014.10.21 >

알림마당

새 소식

■ 동지불공 법회안내 (12월 22일)

동지는 24절후의 스물 두 번째 절기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

라 불리는 동지에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년동지는 음력11월1일 애동지/동지시각 08:03)



- 동지법회: 12월 22일(월) 오전10시
- 헌공물 : 팔, 찹쌀
- 동참금 : 3만원
- ※ 새해 달력 가져가세요.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공모 특별전 (12.12~18)

지난 11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실시된 제1회 불교지화 교육받고 공모전에 출품하였고 회장 정명스님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은 첫째 종이는 한지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천연염천색으로 염색해야 하고, 셋째 전통기법의 살을 접은 지화여야한다는 세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 간 : 12월 12일(금) ~ 18일(목)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오픈식 : 12월 12일(금) 오후 3시

■ 연화공덕 장엄회 총회 (12.17)

- 일 시 : 12월 17일(수) 오후 5시30분
- 장 소 : 정난한식 (조계사 건너편 신한은행 지하)
- ☎(02)929-0669
- 안 건 : 2014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탁실라 줄리앙 불교유적지

정명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연화공덕장엄회 이정자 보살님의 인연으로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여덟 명이 난생 처음 가보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으며 막연히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는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나라로 나뉘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사람 박교수(여)의 소개로 탁실라의 줄리앙(Jaulian)이라는 불교유적지를 가보고는 그 규모와 장엄함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비록 이슬람 국가로 되었지만 과거에 간다라 문명이 시작된 곳이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후대 대승불교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탁실라는 BC 6세기~BC 4세기 동안에 페르시아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BC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레니즘 문명이 전파되었다. BC 3세기에는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와 불교문명을 전하였으며, BC 2세기 무렵에는 다시 그리스문명, AD 1세기에는 쿠산왕조에 의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땅, 탁실라는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 유적지 전체를 일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그 외에도 탁실라는 우리나라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의 고향이며, 사천왕과 보살의 유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곳으로 이는 인도 나란다 불교대학보다 2백년이나 앞선다고 합니다.

2천년 된 불교유적지에서 우리는 그곳에 모인 대중 150명앞에서 육법공양을 올리며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단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한지로 만든 전통 등과 연꽃을 비롯한 여러 꽃으로 장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료와 한국 대사 등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현지 기자들이 취재하였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대승불교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를 올리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정치적 혼란 등 여러 면에서 아직 빈민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설립된 불교대학의 유적 등이 여러 사정으로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움만 더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뜻있는 분들이 그곳에 다시 학교를 짓고 대승불교를 꽃피우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갑오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줄리앙 유적지에 한지로 장엄한 불단>



■ 초하루 신중 3일 기도 (12.22~24)

초하루법회에 동참하는 것은 것은 불교 신행활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날은 청정한 날로 같이 모여 법을 나누고 수행을 점검하는 좋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법회 참석 인연으로 지혜복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12월 22일(월/음 11.1) 오전10시
- 장 소 : 연화세계 법당
- 동참금 : 3만원 (신중기도)

※금년 초하루는 동지불공 법회와 날짜가 같습니다.

■ 지장재일 법회 (2015.1.8)

업장소멸 소원성취 지장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월 8일(목/음 11.18) 오전10시
- 장 소 : 연화세계 법당
- 1년 지장회비 : 15만원

■ 성도재일 철야 기도 법회 (1월 26일. 21시)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포기하고, 용맹정진을 하신지 7일만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재일입니다. 7일간 용맹정진 하신 부처님을 기리는 뜻으로 연화세계에서는 철야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월 26일(월) 저녁9시~1월 27일(화) 새벽4시 (성도재일 전날 저녁~성도재일 새벽)
- 불명 받으실 분은 성도재일날 꼭 오셔서 신심을 내어 초발심심변정각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등공양·꽃공양 올려 공덕을 장엄하십시오. 1인 (등공양-5천원 꽃공양-5천원)

■ 인등비, 지장회비 자동이체 안내

매달 정기법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인등비와 지장회비 자동이체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협 352-0073-9809-53 (예금주: 심갑식)

■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연화세계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봅시다

을미년(乙未年)/ 불교와 양(羊)

풍요-의로움 상징...대세지 보살의 화신



불교에서 양은 파이라 대장으로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을 가진 신이다.

또 대세지보살의 화신로 대세지보살은 많은 별나라와 인간세상을 두루 살피어 그 실정을 아미타 부처님께 보고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보살이다. 인간세상을 시찰할 때는 지상에 내려와 양신이 된다.

‘본생경’에는 풀에 묻은 꿀의 달콤함을 탐내다가 산지기에게 덜미를 잡힌 양 얘기가 나온다.

한국불교에서 양이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백양사(白羊寺)에 양 설화 2가지가 전한다.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을 설하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들었다. 3일째 되던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된 법회가 끝날 밤에 스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천상에서 죄를 짓고 축생 몸을 받았으나 설법을 듣고 업장을 소멸해 천상에 다시 환생해 가게 되었노라”고 했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엔 흰 양 한 마리가 죽어있었고 이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백양사가 옛 이름인 정토사로 불리던 시절 팔원(八元) 스님은 약사암에서 늘 ‘법화경’을 독경했다. 어느 날 흰 양 한 마리가 나타나 독경 소리에 취한 듯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독경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독경을 듣는 양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가더니 흰 양 100마리가 무리지어 나타났다. 그래서 백양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팔원 스님은 양을 불러들였다 해서 환양(喚羊)선사라고 불렀다.

양 꿈은 출세, 성공, 횡재 따위 행운을 암시하기도 한다.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양을 잡으려다 양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놀라 깎다. 불길한 예감에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던 무학대사에게 꿈을 털어냈다. 대사는 ‘양(羊)’ 글자에서 뿔과 꼬리를 떼며 ‘왕(王)’자가 된다면 왕이 될 운명이라고 했다.

지난 8월 24일(일) 제9회 연꽃축제가 가평 연화세계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가평사암연합회회장 승원 큰스님 등 내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식선언



꽃공양시연



점심공양



인사 (승원스님)



가평군수 축사



다도 시연



육법공양



선재들의 야단법석



연요리진



지화전